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가족건강성과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2011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 성 애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PEER RELATIONSHIPS AND SELF-
DETERMINATION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by

Sung Ae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11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가족건강성과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강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 년 8 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 성 애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PEER RELATIONSHIPS AND SELF-
DETERMINATION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Advisor: Prof. Seung Hee Kang

by
Sung Ae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11

김성애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8 월 26 일

주 심 교육학박사 허 균 (인)

위 원 철 학박사 이 정 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강 승 희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의	7
4. 연구의 제한점	8
II. 이론적 배경	9
1. 가족건강성	9
2. 또래관계	14
3. 자기결정성 이론	17
4. 학교적응	23
5.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교적응 과의 관계	25
III. 연구방법	33
1. 연구대상	33
2. 연구도구	33
3. 자료 처리 및 분석	37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8
1.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기술통계치	38
2.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41

3.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44
4.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46
5.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52
V. 논의 및 결론	57
1. 논의	57
2. 결론 및 제언	63
참고문헌	66
부록	72



표 목 차

<표 1>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동향	10
<표 2> 연구대상의 학년별 성별 분포	33
<표 3> 가족건강성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신뢰도	34
<표 4> 또래 관계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신뢰도	35
<표 5> 자기결정성 동기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신뢰도	36
<표 6> 학교 적응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신뢰도	37
<표 7>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치	39
<표 8>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건강성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41
<표 9> 학교적응 하위요인들에 대한 가족건강성 하위요인들의 설명력 ..	42
<표 10> 학교적응에 대한 또래관계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44
<표 11> 학교적응 하위요인들에 대한 또래관계 하위요인들의 설명력	45
<표 12> 학교적응에 대한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47
<표 13> 학교적응 하위요인들에 대한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들의 설명력	49
<표 14>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의 중다회귀분석	52
<표 15> 학교적응 하위요인들에 대한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의 설명력	54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peer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Kim Sung Ae
Major in Educ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lation of family strength, peer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peer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Question for the study are like this:

First, What is the relation of family strength, peer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What are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Third, What is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Fourth, What is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Fifth, What is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peer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This paper examined four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was conducted, that is total 738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Using spss version 16.0 program, this paper conducted mea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peer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show mutually significant correlation.

Second, The higher family strength in middle school students are, the higher school adjustment, among sub-variable of family strength is.

Third, The higher peer relationships are, the higher school adjustment, and the effect among sub-variable of peer relationships was

Fourth, What is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Fifth,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affecting on school adjustment was family strength factor. peer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To help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family members should their family goals to have sound value system. And they should of discuss what goal is important between them. They should try to keep tradition and history .

To do this Parent training program, Getting to know the family etc, is developed Schools and community will be done.

The problem of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is not restricted within individual's problem but included conside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peer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make used of developing of the program for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at school.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생리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다른 시기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적응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적응은 모든 연령과 모든 생활터전에서 일어나지만 청소년기의 적응은 앞으로 그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연령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기의 적응은 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지만, 특히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학교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박지현, 2003).

현대사회에서 학교생활의 중요성으로 볼 때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사회전반의 적응 수준을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학교는 사회적응의 기초훈련 장소이기도 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적응의 실패는 바로 사회적응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하겠다(남영자, 2008)

학교적응에 대한 실패로 나타나는 청소년 문제행동은 청소년기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한 부적응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 문제행동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며, 또한 문제행동 자체가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요인적 접근(유혜경, 1986)이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 중에서 특히 가족관련 변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남영자, 2008; 박민주, 2006).

해마다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연구자들은 가족과 학교 부적응간의 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가족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들은 과거의 가족 역기능적 병리적 관점(류경희, 2003; 박연수, 2003)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가족의 의사소통과 가정의 기능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가족건강성의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이미현, 2005; 임정아, 2005).

최근 국내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건강가족적 접근은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건강가족을 형성케 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것으로 가족 내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기초로 삼음으로써 가족문제나 기타 병리적인 가족의 특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유영주, 2001). 특히 오늘날의 가족은 구조, 기능 및 유형의 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과거 병리적이고 결함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강점중심적 접근이 유지되고 있다(이원숙, 2007).

청소년의 학교적응 문제 역시, 단지 개인의 특성에 국한시켜 접근하기 보다는 가족 체계 속에서 유기체적인 접근에 관심을 두고 가족의 역기능적 병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 체계적인 특성과 심리, 사회적인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실시되었다(김윤경, 2008; 임정아, 2005). 이들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주, 2006; 조학래, 2006). 가족원간

의 가치체계공유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졌으며 (남영자, 2008), 가족원간의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임정아, 2005). 또 부모와의 의사소통 중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어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의 청소년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민경, 2005).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성에 관계없이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연구결과(박민주, 2006)에서는 남학생은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족건강성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즉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및 가족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았다. 한편 가족원 개개인의 자아개발·성취와 더불어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유대성이 균형 있게 유지된 건강한 가족일수록, 또한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기에 있어 사회적 관계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혼란과 갈등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우호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적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성화, 2010).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연구에 따라 학교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원간의 유대(박민주, 2006),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손민경, 2005), 가족원간의 문제해결능력(임정아, 2005), 가족원간 가치체계 공유(남영자, 2008)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개인특성, 가족특성, 학교관련 특성, 친구관련 특성과 사회구조적 환경 등 여러 원인들 중에서 중요한 일차적인 원

인이 가족문제이지만(정유미, 김득성, 1998), 청소년의 경우 친구관련 특성도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남현미·옥선화, 2001)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의 적응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교 내에서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때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학업 성적은 물론 가치관 확립이나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조영한, 2005). 또래와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은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고,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할 기회를 감소시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유아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 문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래수용도가 높은 아동들은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적으며, 범죄 행동이나 비행이 적다고 한다(김미란, 2002). 이는 또래 집단에서의 또래관계가 원만한 사회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또래관계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노진하, 2007; 정정화, 2008). 이들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또래관계는 학교생활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이며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친구와의 깊은 또래관계를 통하여 심리적으로 발달해 가는 시기이므로, 학생들 상호간에 맺는 친구관계가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표선, 2004; 정유진, 2005; 정정화 2008; 황경미, 1998)가 많았다. 부모보다는 또래 지지를 더 필요로 하는 중학생 시기에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또래관계가 학교적

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계청(2010년 청소년통계)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5~19세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공부’가 57.5%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많다는 증거로서, 학생의 학습관련 변인이 학교적응에 관련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학습관련 변인 중 최근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변인으로 자기결정성 동기를 들 수 있다.

최근 자기결정성 동기에 관심을 둔 여러 학자들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자기결정성동기와 학습관련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김아영, 2002; 박병기·이종욱·홍승표, 2005).

김일태와 허남진(2004)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결정성 동기의 상·중·하 수준별로 학교적응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을수록 학습자들은 학교에 대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에 따라 수행이나 대처, 적응에서 차이가 났는데, 내재적 동기와 확인된 동기는 개인이 다양한 환경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며(고경희, 2003), 외적으로 동기화된 학생일수록 성취에 대한 관심이 낮고 가치를 두지 않으며, 노력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부인하고, 교사와 같은 사람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확인된 조절의 동기유형을 갖고 있는 학습자는 학교생활에 대한 재미와 관심이 높았다(Ryan & Connell, 1989).

그러나 자기결정성 동기가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기울인 변인이기 때문에 학업성취(임지현, 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석영, 2009), 자아탄력성(이나영, 2008) 등, 여러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변인들과의 자기결정성 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계속 시

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중학생의 개인 심리적 특성, 친구 관계, 가족관계가 학교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중학생의 개인적 변인이 학교적응과 더 관련이 있는지 혹은 가족변인이나 또래변인이 학교적응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의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 및 학교적응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생의 다양한 개인차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학교적응을 잘 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의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 및 학교적응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중학생의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중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다섯째,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가.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는 김용래(1993)의 정의에 기초하여 학교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상황-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 내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전반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학교상황내의 제반 요구에 균형있게 조절하고,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에서 실현 가능성에 비추어 신중하게 고려하여 학교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라고 정의하였다.

나. 가족건강성

본 연구에서의 가족건강성은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을 가지는 정도(어은주·유영주, 1995) 라는 정의를 따르고자 하였다.

다. 또래관계

본 연구에서의 또래관계는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또래 성원 망 내에 있는 조건과 자극인 또래 성원들 간의 지지(이주리, 1994)로 정의한다.

라.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결정성 동기란 학습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얼마나 자기 결정적인가 즉,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안소정, 2008). 본 연구에서 자기결정성 학습 동기는 자기결정성의 수준에 따라 무동기, 외적 조절, 내사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동기로 구분된다.

4. 연구의 제한점

가. 부산 시내의 4개 중학교를 조사함으로써 그 대상의 수나 수집방법이 충분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은 자기보고식이었으므로 응답이 지극히 주관적인 경향이 강한 특징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건강성

가. 가족건강성의 개념

가족건강성은 최근 가족연구에 있어서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은 1962년 미국의 가족학자 Otto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가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가족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들어 유영주(1991)의 건강가족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가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남영자, 2008).

건강 가족적 관점(family strength perspective)에 기초한 개념인 ‘건강한 가족(strong family)’은 가족의 병리적, 부정적 측면보다 가족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며 오늘날 개인과 가족은 개방체계로서 어느 한 측면의 강화만으로는 전체 체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어은주, 1996).

가족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까지는 부정적인 측면과 병리적인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온 데 비해 건강 가족적 관점은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가족생활의 성공을 원하는 다른 가족원들에게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다. 가족건강성은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건강가족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것으로 가족내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기초로 삼음으로써 가족문제나 기타 병리적인 가족의 특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권대희, 오윤자, 2004).

그동안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한 연구동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1>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동향

연구자 및 건강가족의 명칭	연구 동향
Otto(1962) 가족강화 연구 (Family Strengths)	가족원간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함. 중요 요인은 양육, 지지, 부모의 훈육, 가족원의 성장과 성숙의 격려, 정신적인 행복감,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 해결 기술, 가정 외부의 활동에 가족원이 함께 참가하는 것 등이다.
Stinneett(1977) 강한 가족 연구 (Strong Family)	건강가족의 6가지 기본 속성을 감사/존중, 질적인 시간 함께 보내기, 긍정적인 의사소통, 헌신, 종교적 태도, 문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규명함.
Curan 건강가족 연구 (Healthy Family)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서로 긍정적이며 협조적이고, 타인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서로 신뢰하고, 놀이와 유머에 대한 감각이 있고, 공동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옳고 그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르치며, 의식과 전통을 존중하는 가족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들간에 균형잡힌 상호작용이 있으며, 공통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사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며,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며, 여가시간을 같이 즐기며, 문제가 생기

	면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음.
Bloom(1985) 기능적 가족 연구 (Functional Family)	가족의 사회성, 가족의 개별성, 외부의 통제 조정능력, 가족의 친목도 이 네가지가 가족의 기능도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지적함.
어은주·유영주(1995) 건강가족	가족원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적 관계향상을 도모하는 가족
허봉렬(1996) 건강가족	가족체계가 내적, 외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사랑, 규율, 관용, 적응력, 자유로운 대화로써 대처해 나가는 가족
지영숙·이영호(1998) 건강가족	지역사회 단위에서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그 기능들의 수행을 위한 바른 태도, 실천하는 용기,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정도가 높은 가정
유영주(2002) 건강가족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의사결정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친족, 사회체계와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생활해 나가는 체계

출처 : 유영주외(2008). 현대 결혼과 가족, p34-37, 남영자(2008). p8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건강성 정도를 측정하고, 건강한 가족의 특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밝혀 이들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에 따라 학교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나. 가족건강성의 하위 영역

전반적으로 건강한 가족의 공통되는 특성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둘째,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셋째, 가족문제

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마지막으로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Olson, Russell와 Sprenkle(1989)은 가족건강성을 가족적응력, 가족응집력, 가족의사소통의 상호 독립적인 3측면으로 보았고, Barnhill(1979)은 명확한 의사소통 인식, 유연성 및 역할 공유, 상호신뢰, 개별성 등의 4가지로 나누었고, 최선희(1999)는 의사소통, 유연성, 자율성, 신뢰와 지지, 애정과 사랑, 문제해결능력, 부모역할, 가족신념(유대) 8가지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은주·유영주(1995)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본 척도에서 설정한 가족건강성의 4가지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원간의 유대

건강한 가족의 가족원들은 서로 유대가 강하며 가족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가족원간에 유대가 강하다는 것이 서로를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다른 가족원과의 유대를 견고하게 맺음으로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고립감 등이 나타날 소지는 별로 없다(어은주·유영주, 1997). 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즐기, 일하기, 친밀감, 애정적 반응 등을 포함한다(이경은, 2003)

(2)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은 의사소통에 의해 유지, 발전되는 공동체 집단으로서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한 상호작용매체로 인식하고 있다(유영주, 2004). 가족원간의 의

사소통은 가족원끼리 사랑, 존중, 평등, 책임 및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가족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 주며, 다른 가족과 더불어 사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은 긍정적인 가족 정체감을 창조하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도모하며, 가족원들의 잠재적인 발달을 도우며, 스트레스와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장성화, 2010). 건강한 가족은 대화를 자주 하고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서로에게 자주 감사와 애정의 표현을 한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란 경쟁적이기보다 협조적인 분위기속에서 가족원들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개방적이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정현숙·유계숙, 2001).

(3)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건강한 가족은 위기나 문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나 위기에 면역되어 있는 가족은 아니지만, 역기능적인 가족처럼 위기에 좌우되지 않는다. 문제나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의사결정과정까지 포함한다(이경은, 2003). 건강한 가족은 가족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과 불가피한 위기에 직면하여 가족원들이 함께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유계숙, 2004)

(4)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건강한 가족은 가치관 및 신념에 있어서 건강한 가치체계를 공유한다. 그들은 목표를 공유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공유한다(Curran, 1983; Olson, 1993). 가족의 사회 심리적, 관계적 특성이 중시되는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 생활패턴이 개인주의의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

과 휴식을 찾을 수 있는 일차적인 집단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인간은 그들의 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다(장성화, 2010).

2. 또래 관계

최근 출생률 저하로 인한 형제 수의 감소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김천기, 2003).

또래간의 상호작용은 학령전기의 발달과정을 지나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여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또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증대된다(Hartup, 1993).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공통적인 관심과 문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서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가족을 벗어난 가치의 원천이 되며 성인의 압력이나 간섭에 대항하는 힘을 주는 준거집단의 기능도 하게 된다.

또래관계의 특성 중 하나로 유사성을 들 수 있는데 영아기나 유아기에는 특성이나 특징에 관계없이 친구를 사귀게 되는 반면, 청소년기에는 목표나 취미 등이 비슷한 친구와 우정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특히 다른 보통 친구들보다 가장 친한 친구는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더 유사성을 보인다(Kandel, 1978).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관계의 또 다른 특징으로 단짝 친구 관계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또래관계를 통해 형성한 친밀감은 청소년의 적응과 유능감인 사회 정서적 기능과 관련이 있고, 청소년의 관계가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윤상은, 2008)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동후기 즉 초기 청소년 시기에 있는 고학년 아동들은 급격한 신체변화와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도기적인 불안한 위치에 있으므로 또래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래집단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다. 또한 아동이 의사결정을 할 때 주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점차적으로 이동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동에게 또래집단은 함께 당면한 문제와 고민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김진경, 2002)

최석란(2001)은 어린 시절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어린시절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거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또래관계가 비교적 긍정적인 아동은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들은 또래관계의 문제 때문에 학교생활을 힘들어하거나 학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자신과 잘 어울리는 또래친구들이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좌지우지할 만큼 아동에게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정정화, 2008)

특히 또래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나 정서적 안정감 제공과 같은 질적인 면은 아동에게 자기존중감과 정서적 안정감 등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공헌을 하며,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발생하는 갈등은 도덕성과 인지 능력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많은 긴장과 불안 상태를 유발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정서적 지원의 원천으로서 아동의 또래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노진하, 2007)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에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학교에서의 적응은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김용래(2000)가 제시한 학교적

응의 5가지 하위요인인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중에서 학교친구적응이란 학교 친구들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학교 친구 간에 유발되는 각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해 나가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학교친구적응은 또래관계의 질을 알게 해주고 또한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더불어 그 후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윤상은, 2008)

또래관계에 대한 또 다른 한용희(2004), 이순임(2005), 이남희(2005)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를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이라는 7개의 하위 영역으로 보고 있다.

또래관계를 또래의 기능을 토대로 나이, 흥미 등 비슷한 상황의 조건을 가진 또래들이 같이 어울려 활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집단으로 비슷한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집단 내 관계로 정의하기도 한다(김연화, 2002)

본 연구에서 또래 관계란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또래 성원 망 내에 있는 조건과 자극인 또래 성원들 간의 지지(이주리, 1994)로 정의한다.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또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통적 관심,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소속감과 함께 정서적·심리적 지지도 받고, 어른의 간섭에 대항하는 준거집단의 기능도 가지게 되어 학교적응에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가족의 위기문제와 갈등도 또래 지지로 개선할 수 있으므로 또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자기결정성 이론

가. 자기결정성 이론의 배경

전통적으로 동기는 외재동기와 내재동기로 나누는데 외재 동기 이론가들은 외적 보상이나 벌을 통해 학습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외적 보상을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자기결정성 동기를 유발시키고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습자의 흥미를 중요시하는 내재 동기 이론가들은 외적인 동기 유발을 통한 학습은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나의 통제나 제약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결국 배움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재적 동기 유발을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최병연, 2002).

1980년 이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와 주장들이 Deci와 Ryan(1986), Connell(1989) 등에 의해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은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들의 관계가 단순히 대립적이고 경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며 외재적 동기의 개입이 있어도 자기결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현재 자기결정성 동기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학습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스스로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가 스스로의 선택에 기인하는 정도를 가리킨다(Deci & Ryan, 1986). 다시 말해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또는 얼마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외재 동기의 정도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주장이다(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지평가 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CET), 유기체통합 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OIT), 인과지향성 이론(causality orientations theory, COT), 기본욕구 이론(basic needs theory, BNT)으로 구성되며, 연역적인 논리에 의해 구성된 이론 체계는 아니지만 상호간에 결합성이 있다고 한다. 이들 4가지 이론 중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BNT이다(Ryan & Deci, 2002).

기본욕구 이론(BNT)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기본 욕구를 자기결정성(또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고 제시한다. 자율성(autonomy)은 타율성(heteronomy)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기에 의한 조절(regulation by self)이며 내재동기의 핵심 개념이다(Ryan & Deci, 2006). 자율성에 대한 경험은 보상이나 외부 압력 등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주환 등, 2006). 이 세가지 기본욕구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통합감과 안녕감 또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생 전반에 걸쳐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Ryan & Deci, 2000b).

Levesque(2004) 등은 대학생들이 자기결정의 느낌과 유능감을 갖는 것이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어 웰빙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하였다. Niemiec(2006) 등은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지지되었을 때 더 큰 안녕감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통제적인 학습 환경속에서 자율성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자율성에 대한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탐구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안소정,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초하여 자기결정성 동기가 청소년의 학교적

응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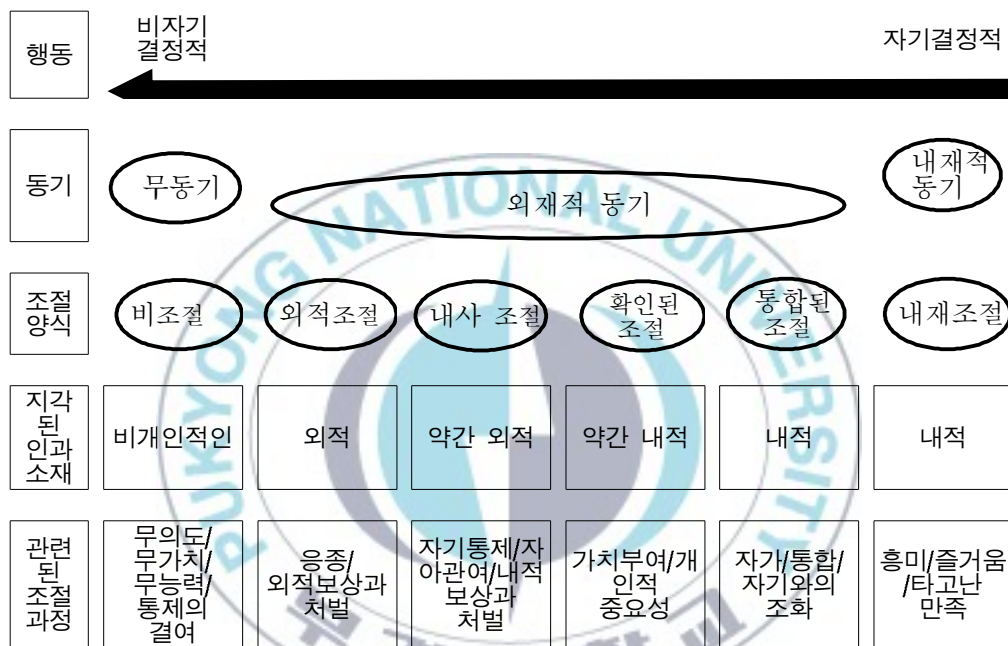
자기결정성 이론은 동기의 유형을 하나의 연속선상에 두고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라 무동기(amotivation), 외재 동기(extrinsic motivation), 내재 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연속체로서의 동기화에 관해서는 개념적으로 타당성을 지지하는 연구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Ryan, Connell, & Deci, 1985; Vallerand & Bissonnette, 1992). 이후 Deci와 Ryan(1987, 2002)은 아동의 숙제를 비롯한 학교활동의 전반에 대한 행동의 이유를 분석하면서 동기를 상대적인 자율성 또는 자기결정성의 차원에 따라 질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자기결정연구에는 외적 동기 중 네 가지 조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개념화와 달리 경험적 연구들은 6개의 동기유형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경희, 2003; 김아영, 2002; 박병기 등, 2005). 김아영(2002)은 확인된 조절과 통합된 조절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였고, 고경희(2003)의 연구에서는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확인/통합 조절과 내재 동기와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3요인 또는 4요인 분류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박병기 등(2005)은 6요인 분류보다 2, 3요인 분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적절한 동기유형 분류를 위해 박병기의 견해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을 무동기, 외적/내사조절, 확인/통합조절, 내재동기로 분류하였다.

전통적으로 동기에 대한 연구들은 내재동기가 결핍된 것이 외재동기라고 이분법적으로 정의하였으나, 자기결정성 이론은 외재동기가 상대적인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고 정의한다(Ryan & Connell, 1989). 자기 결정성 동기 유형은 조절양식, 지각된 인과소재, 관련된 조절 과정에 따라 <그림1>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동기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1> 동기 유형에 따른 자기결정의 연속체(Ryan & Deci, 2000)

(1) 무동기(amotivation)

무동기는 자기결정의 연속성상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하며 행동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이다. 무동기 상태인 학생들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 무동기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행동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Ryan, 1995),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 이러한 면에서 무동기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과 유사하다(Ryan & Deci, 200b). 그리고 이들은 외적 조절에 의해 동기화되는 학생들보다 자기 조절적이지 않다. 이들은 또한 쉽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동기화되어지지도 않고 외재적 동기를 인지할 수조차 없다

(2)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외적 조절은 외재 동기 중 첫 번째 유형으로 가장 낮은 자율성을 갖는 상태이다. 단순히 교사나 부모와 같은 권위자들이 제시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학습에 의하여 동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성 또한 없다. 외적 조절 상태의 학생들은 외부적인 어떤 요구나 혹은 보상 때문에 행동한다(임지현, 2007).

(3) 내사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내사 조절은 외재 동기의 두 번째 유형으로, 이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을 가지려는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내사 조절에서는 행동에 대한 조절들을 막 내면화시키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책감 또는 불안과 같은 타율적 압력에 기초한 것이므로 다소 통제적이다(Ryan & Deci, 2002). 내사 조절에 기초한 행동은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피하거나 자기강화나 자기 가치감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한다(Deci, Vallerand, Pelletier, & Ryan, 1991)

(4)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외재 동기의 세 번째 유형으로 개인이 행동의 목표나 행동의 조절을 의식적으로 가치를 인정하여 수용한 상태를 나타낸다. 확인된 조절은 외적 조절이나 내사 조절과 비교해서 더 자율적이지만 결과를 위한 수단으로 행동하므로 여전히 외재 동기에 속한다(Hayamizu, 1997). 확인된 조절은 내사 조절에 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학교에 대한 관심과 재미, 더 긍정적인 대처 양식과 관련되었다(Ryan & Connell, 1989).

(5)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Ryan과 Deci(2000)는 기존의 동기유형에 더불어 확인된 조절과 내재 동기 사이에 통합된 조절의 존재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통합된 조절은 외재 동기 중 가장 자율적인 형태로 확인된 조절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동화될 때 생겨난다(Ryan & Deci, 2000a).

그러나 Kim(2002)의 연구결과를 보면 통합된 조절이 확인된 조절이나 내재 동기와 잘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아영(2002a)의 연구에서도 통합된 조절이 확인된 조절과 잘 구분되지 않아 변별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내재 동기(intrinsic motivation)

내재 동기는 가장 자기 결정적이며 자율적 행동의 원형이다(Deci, Vansteenkiste, 2004). 내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은 외적 보상이나 압력과 같은 도구적 목적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행동 자체의 흥미와 즐거움 때문

에 행동한다(Ryan & Deci, 2000a). 내재 동기란 인간 내적인 욕구와 유능감과 자기결단을 기초로 유발되는 것이다(Deci & Ryan, 1980).

4. 학교적응

가. 학교적응의 개념

청소년의 적응은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요구, 좌절, 갈등, 스트레스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행동과정으로 소극적 의미가 아닌 환경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적극적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에 소속하는 청소년이 그 집단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도 이러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에 만족을 느끼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적응은 고정된 구성개념이 아니라 구성원 간 상호평가에 의한 역동적 과정이며, 부적응적 특성은 학생의 기능과 환경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의 실패를 의미한다(Bierman, 1994).

학교적응은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조화롭고 원만한 관계를 이룸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심리적 안정감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학교생활 중에 접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 환경에 바람직하게 순응하는 것이다(문은정 · 심희옥, 2001)

학교적응이란 인간이 자기의 욕구와 학교 환경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욕구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교적응은 주어진 학교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학교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개인과 학교 환경 사이에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추미애, 2005)

나. 학교적응의 결정 영역

본 연구에서는 김용래(2000)가 설정한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교환경 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등의 5가지 변인들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학교환경적응(school environment-related adjustment)

학교환경적응은 학습자가 학교환경을 바르게 수용해서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환경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정도이다.

(2) 학교교사적응(school teacher-related adjustment)

학습자가 학교교사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교사에게 적절하게 조절하며, 교사와의 관계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해 나아가는 정도이다.

(3) 학교수업적응(school instruction-related adjustment)

학교수업적응은 학교의 수업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수업시간에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수업시간에 유발하는 학습

자 개인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하는 정도이다.

(4) 학교친구적응(school friend-related adjustment)

학교친구들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학교 친구간에 유발되는 각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해 나가는 정도이다. 이와같이 청소년들의 학교친구적응은 자신들의 생활양식, 행동양식, 가치관, 심리적 기제 등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며 오히려 가족이나 교사에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으며 의지한다.

(5) 학교생활적응(school life-related adjustment)

학교생활적응은 학습자들의 학교생활인 교내의 규칙과 질서 · 각종 행사 · 시설물의 활용 · 준비물의 지참 · 교내홍보와 게시물 확인 등 학교 내 생활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파악하면서 학습자 개인에게 유발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대처해나가는 정도를 말한다.

5.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개인특성변인과 가족특성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특성변인으로서는 성별, 연령, 학교유형, 종교유무, 성격, 자아존

중감, 청소년의 문제 대처양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연숙, 2005; 김윤경, 2008; 임정아, 2005). 가족특성변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동거가족의 수,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가족의 건강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윤경, 2008; 김희정, 2003; 박민주, 2006; 손미경, 2005; 이지형, 2006; 임정아, 2005). 이해익(2000)은 중·고등학생의 학교부적응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부적응 요인으로 건강 및 정서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업적 요인, 교우관계, 사회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또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친구관계가 친밀할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고 나타났다(노진하, 2007).

본 연구에서는 가족특성변인인 가족건강성과 또래관계 및 개인심리적 특성인 자기결정성 동기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가. 학교적응과 가족건강성

가정은 성인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사회적인 장소로, 학교생활 적응은 이러한 가정의 영향에 기초한다. 심각한 가정불화, 자녀에 대한 무관심 혹은 과도한 기대,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같은 상황은 청소년들의 발달을 저해하며 가정의 실패는 곧 학교생활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류경희, 2003). 따라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되는 가족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다.

가정이 가족의 공동목표에 동조하고 협동하는 관계에 있으며 융합된 가정일 때에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력이 길러지고 현실수용능력이 발달되어

협동성이 강화되겠지만, 만일 가족 구성원이 협동하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정일 때에는 청소년에게 갈등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비사회적 특성이 육성될 것이며 부적응으로 이어질 것이다(서미선, 2003). 가족이 기능적일 때 자녀의 대인관계는 독립-책임적, 동적-수용적, 사고-우호적 성향이 강하며, 반항-불신적 성향이 낮다고 하였다(이문행, 1994).

이처럼 청소년의 학교적응 문제를 단지 개인의 특성에 국한시켜 접근하기 보다는 가족 체계속에서 유기체적인 접근에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은 역기능이나 병리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고,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의 구조를 응집성, 적응성, 가족의 구조적인 결손 등에 초점을 맞춰 단순한 비교 정도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임정아, 2005)

가족의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가족생활의 질이 학생의 건강성과 안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족생활의 부정적인 측면 즉 가족의 문제가 가족의 개개인의 외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을 둠으로서 역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건강한 가족체계의 영향력을 추론하는 방식을 취해왔다(어은주·유영주, 1995).

이를 실제로 연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건강성으로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을수록,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및 하위요인 전체 간 정적상관을 이루며 성별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임정아, 2005).

박민주(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건

강성 요인 중 남학생은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을수록,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족건강성의 모든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인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간의 가치체계 공유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영자, 2008).

한편, 부모와의 의사소통 중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의 청소년이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민경, 2005). 그리고 이지형(2006)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구성요소는 의사소통, 신뢰성, 애정과 사랑, 건강, 화목한 가족분위기 순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분석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대안학교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교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장성화, 2010).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문제해결능력, 가족원간 가치체계 공유 등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남영자, 2008; 박민주, 2006; 임정

아, 2005) 등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지는 않아 가족건강성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학교적응과 또래관계

또래와의 교류와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사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래간의 적극적이고 원만한 관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자아상은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김현철 외, 2007).

7-8학년을 대상으로 한 Berndt와 Keefe(1995)의 연구에서는 친구관계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적응 향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친구관계가 긍정적 특성을 더 많이 가진 경우는 학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관계에서 부정적 특성을 더 많이 가진 경우는 학교 활동에 덜 참여하고 이탈된 행동을 보였다.

또래관계의 질에 따른 학교적응도에서 또래관계의 질이 높은 아동이 학교적응도 역시 높게 나왔는데, 아동상호간의 친밀감, 사회정서적 지지 인정,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높을수록, 또한 갈등과 대립, 철회, 고립, 무시, 또래관계에 대한 불만족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낮을수록 학교에 대한 적응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였다(정정화, 200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용수(2005)의 연구에서는 학급내의 학생이 친밀한 상호 교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얻어 학교생활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들에게서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자은, 2000; 임유진, 200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친구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친구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아동은 학교를 선호하며 특히 또래간의 인정과 원조가 아동의 학교에서의 정서적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이호선, 2000). 중학생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친구관계가 친밀할수록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적응도가 높다는 것으로 보고했다(신현균, 2007).

정유진(2005)은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외로움을 적게 느끼고, 남아에게서는 또래의 정서적 지지가, 여아에게서는 또래와의 교환적 활동이 외로움에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함께 투입한 변인, 즉 자기효능감(장성순, 2006), 부모-자녀 의사소통(노진하, 2007; 정정화, 2008), 어머니 및 형제와의 애정적 유대(정유진, 2005)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보다는 또래 지지를 더 필요로 하는 중학생 시기에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다른 변인들과 함께 또래관계 변인은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를 느꼈다.

다. 학교적응과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결정성 동기는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원만한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학교적응을 잘하는 학습자가 학업성적이 높고, 지적활동에 관심과 흥미가 많으며 교사에 대한 지각과 적응이 좋고 학교수업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교적응과 학업성적간에는 성별, 지역별,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유의있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적응 수준 여하는 학습자들의 자아개념은 물론 자기결정성 동기와의 유의 있는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김용래, 1993).

그동안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적응과 자기결정성 동기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은 자기결정성 동기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학습자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에 대한 신념이 긍정적일수록,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과 적극적인 태도, 의지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있어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도 높아진다고 하였다(유미리, 2007).

자기결정성 동기의 상·중·하 수준별로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을수록 학습자들은 학교에 대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일태, 허남진, 2004), 자기결정성 동기는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는 물론 학교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업성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학교적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명희·하정희·차정희, 2004).

또한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 수준에 따른 학교적응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며, 자기결정성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추미애, 2005).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내재적 동기유형은 줄어들고 외재적 동기유형과 무동기 유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중학교의 교육환경이 훨씬 엄격해지고 교사와의 개인적 친밀성이 약해지며, 개인의 성취수준이 또래들간에 보다 쉽게 노출되고, 교사의 통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 시기에 자기결정성 동기가 현저하게 떨어짐을 보고하

였다(김아영, 2002b).

연령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의 변화에 따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인생에서 학교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한 가지 특별한 재능, 학교공부, 성격의 순으로 중요가치로 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입시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초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생에게서는 학교공부를 들고 있으나 중학생들은 한 가지 재능을 꼽았다. 공부하는 이유로는 취직이 가장 많은데 저학년일수록 공부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데 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강조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결정성 동기에 있어서 교육환경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심우엽, 2001).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4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7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738부의 설문지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학년별, 성별 분포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학년별 성별 분포

					명(%)
성별 \ 학년	1	2	3	전체	
남	34(17.3)	115(35.6)	94(43.1)	243(32.9)	
여	163(82.7)	208(64.4)	124(56.9)	495(67.1)	
전체	197(100.0)	323(100.0)	218(100.0)	738(100.0)	

2. 연구도구

가. 가족건강성 척도

연구대상자의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은주·유영주(1995)가 제작한 한국가족의 특성에 기초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4개의 문항으로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수행능력(6문항),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 등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5점) 평정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총체적인 가족의 건강성 및 각 하위 요인 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로 각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가족건강성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신뢰도

하위 영역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가족유대감	10	2,5,9,14,18,21,24,27,31,33	.91
가족간의 의사소통	9	1,4,8,13,17,20,23,26,30	.85
가족원의 문제해결능력	6	3,6,10,15,19,28	.77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9	7,11,12,16,22,25,29,32,34	.90
전체	34		.96

나. 또래 관계 척도

또래 관계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주리(1994)가 제작한 또래 환경 평가 척도를 수정, 사용하였다. 이는 모두 세 개의 영역에 하위 척도별로 9, 3, 1개씩 모두 1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로서, 정서적 지지(9문항), 공동활동(1문항), 교환적활동(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개의 문항으로만 측정되는 공동활동은 분석에서 제외시켜 정서적 지지와 교환적활동의 2가지 영역으로 또래관계를 알아보았다.

또래 관계의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

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측정하였고,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으로 각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또래 관계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신뢰도

하위 영역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정서적 지지	9	1,2,3,4,8,9,10,11,12	.87
교환적 활동	3	5,6,7	.79
전체	12		.90

다. 자기결정성 동기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입각하여 박병기·이종욱·홍승표(2005)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yan(2004)이 제시한 학업적 자기조절 질문지(Academic Self-Regulation Questionnaire : SRQ-A)에 근거하여 외적조절, 내사조절, 확인된조절, 그리고 내재동기의 문항을 수정/제작하고 무동기와 통합조절의 문항은 Ryan과 Deci(2000)의 개념화에 근거하여 박병기 등(2005)이 새롭게 개발한 것이다. 척도의 문항들은 숙제, 공부, 토론/발표, 성적 등 수업에 연관된 행동을 포함하여 진술되었다. 개발된 문항의 척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5점 척도로 연구자가 수정하였다. 무동기, 외적조절, 내사조절, 확인된조절,

통합조절, 내재동기의 6요인에 각각 8개의 문항이 배당되었고 각 동기 유형별로 8점에서 40점까지의 점수가 측정되었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이 제안한 6개의 동기유형이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고경희, 2003; 김아영, 2002; 박병기 등,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 33문항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은 무동기, 외적/내사조절, 확인/통합조절, 내재동기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로 각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5> 자기결정성 동기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신뢰도

동기 유형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무동기	4	3,4,7,8	.86
외적/내사조절	12	9,10,11,12,15,16,17,18,19,20,23,24	.86
확인/통합조절	12	25,26,27,28,31,32,33,34,35,36,39,40	.93
내재동기	5	42,43,44,47,48	.91
전체	33		.87

라. 학교 적응 척도

중학생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용래(2000)가 제작한 '학교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등 5개의 하위 변인에 전체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학생들이 적응하고 있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으로 각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6>과 같다.

<표 6> 학교 적응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학교환경적응	10	5,7,9,10,11,12,13,14,15,16	.96
학교교사적응	10	4,24,25,26,27,28,29,30,31,32	.93
학교수업적응	8	33,34,35,37,38,39,40,41	.87
학교친구적응	7	17,18,19,20,21,22,23	.83
학교생활적응	6	1,2,3,6,8,36	.82
전체	41		.96

3.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등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의 각 하위변인이 학교적응과 학교적응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 및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및 전체 점수들에 대한 상관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7> 가족건강성, 또래 관계, 자기결정성 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가족유대감	1																		
2.가족의 사소통	.89** *	1																	
3.가족문제해결	.86** *	.84** *	1																
4.가족가치체계	.87** *	.84** *	.83** *	1															
5.가족건강성	.96** *	.94** *	.93** *	.94** *	1														
6.정서적 지지	.42** *	.41** *	.40** *	.41** *	.44** *	1													
7.교환경 동	.30** *	.27** *	.27** *	.25** *	.29** *	.68** *	1												
8.또래관 계	.39** *	.37** *	.36** *	.35** *	.39** *	.91** *	.92** *	1											
9.무동기	-.26 ***	-.19 ***	-.22 ***	-.21 ***	-.23 ***	-.15* **	-.16 ***	-.17 ***	1										
10.외적내 사조절	-.16 ***	-.13 ***	-.12 **	-.09 *	-.13 ***	-.14* **	-.13 ***	-.14 ***	.34** *	1									
11.확인통합 조절	.32** *	.31** *	.30** *	.33** *	.34** *	.26** *	.16** *	.23** *	-.41 ***	-.05	1								
12.내재동 기	.29** *	.31** *	.29** *	.34** *	.32** *	.24** *	.10** *	.18** *	-.30 ***	-.19 ***	.56** *	1							
13.자기결 정성 동기	.09* *	.15** *	.12** *	.18** *	.14** *	.11** *	-.02	.05	.38** *	.50** *	.52** *	.57** *	1						
14.학교환경	.30** *	.29** *	.27** *	.32** *	.31** *	.30** *	.24** *	.30** *	-.22 ***	-.22 ***	.31** *	.35** *	.12** *	1					
15.교사적응	.37** *	.36** *	.38** *	.40** *	.40** *	.30** *	.18** *	.26** *	-.21 ***	-.21 ***	.34** *	.37** *	.15** *	.55** *	1				
16.수업적 응	.42** *	.39** *	.40** *	.45** *	.44** *	.32** *	.22** *	.29** *	-.32 ***	-.23 ***	.43** *	.46** *	.17** *	.50** *	.68** *	1			
17.친구적 응	.39** *	.36** *	.37** *	.37** *	.39** *	.49** *	.41** *	.49** *	-.21 ***	-.24 ***	.28** *	.25** *	.05	.59** *	.58** *	.54** *	1		
18.생활적 응	.40** *	.36** *	.39** *	.40** *	.41** *	.27** *	.20** *	.25** *	-.30 ***	-.25 ***	.38** *	.34** *	.08* *	.57** *	.61** *	.61** *	.57** *	1	
19.학교적응	.46** *	.43** *	.44** *	.48** *	.48** *	.41** *	.30** *	.39** *	-.30 ***	-.28 ***	.43** *	.44** *	.15** *	.80** *	.85** *	.82** *	.79** *	.81** *	1
M	3.57	3.38	3.46	3.29	3.42	3.45	4.03	3.74	2.21	2.62	3.09	2.44	2.59	2.99	3.00	2.92	3.32	3.34	3.11
SD	.74	.68	.66	.73	.66	.64	.70	.61	.91	.67	.72	.86	.39	.87	.80	.74	.64	.65	.60

*p<.05, **p<.01, ***p<.001,

<표 7>은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이다. 각 하위변인들간의 상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몇 개의 하위변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변인들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의 각 하위변인들과 학교적응 하위변인들간의 상관을 보면,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간의 상관은 $r=.48(p<.001)$ 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유대감과 학교적응은 $r=.46(p<.001)$, 가족의사소통과 학교적응간의 상관은 $r=.43(p<.001)$, 가족문제해결과 학교적응간의 상관은 $r=.44(p<.001)$, 가족가치체계와 학교적응간의 상관은 $r=.48(p<.001)$ 로 나타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간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또래관계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보면, 또래관계와 학교적응간에는 $r=.39(p<.001)$ 의 상관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서적 지지와 학교적응간에는 $r=.41(p<.001)$, 교환활동과 학교적응간에는 $r=.30(p<.001)$ 의 상관이 나타나, 또래관계의 하위요인들과 학교적응간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교적응간에는 $r=.15(p<.001)$ 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들 각각에 대해서는 무동기와 자기결정성 동기간에는 $r=-.30(p<.001)$, 학교적응과 외적내사조절간에는 $r=-.28(p<.001)$, 학교적응과 확인통합조절간에는 $r=.43(p<.001)$, 그리고 내재동기와 학교적응간에는 $r=.44(p<.001)$ 의 상관이 나타났다.

2.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건강성의 하위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건강성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인	B	β	t	R	R ²	F
1	(상수)	1.83		20.26***			
	가족가치체계	.39	.48	14.65***	.48	.23	214.61***
2	(상수)	1.73		17.90***			
	가족가치체계	.26	.32	4.88***	.48	.23	112.16***
	가족유대감	.15	.18	2.78***			

***p<.001

위의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적응에 대해 5% 수준에서 가족건강성 하위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가족가치체계, 가족유대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 모형이 산출되었다. 가족가치체계가 1단계로 투입되었다. 이 변인은 학교적응에 대해 2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다($F=214.61$, $p<.001$). 2단계에서 가족가치체계와 가족유대감이 투입되었는데, 이 모형은 학교적응에 대해 23%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2.16$, $p<.001$). 단계 1에서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가치체계의 설명력은 β 계수가 .48($p<.001$)로 나타났으며, 단계 2에서는 가족가치체계 β 계수가 .32($p<.001$), 가족유대감의 β 계수가 .18($p<.001$)로 나타나 가족건강성 하위요인중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가치체계와 가족유대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분석은 학교적응 각 하위요인들에 대한 가족건강성 하위요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본 결과이다.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학교적응 하위요인들에 대한 가족건강성 하위요인들의 설명력

변인	모형	독립변인	B	β	t	R	R ²	F
학교환경	1	(상수)	1.77		13.04***			
		가족가치체계	.37	.32	9.17***	.32	.10	84.05***
교사적응	1	(상수)	1.56		12.44***			
		가족가치체계	.44	.40	11.71***	.40	.16	137.22***
	2	(상수)	1.38		9.60***			
		가족가치체계	.29	.26	4.42***	.41	.16	72.83***
		가족문제해결	.19	.16	2.70**			
수업적응	1	(상수)	1.40		12.34***			
		가족가치체계	.46	.45	13.83***	.45	.21	191.34***
친구적응	1	(상수)	2.11		19.47***			
		가족유대감	.34	.39	11.33***	.39	.15	128.47***
	2	(상수)	2.08		19.06***			
		가족유대감	.22	.25	3.69***	.39	.15	67.11***
생활적응	1	(상수)	2.17		21.37***			
		가족가치체계	.36	.40	11.86***	.40	.16	140.64***
	2	(상수)	2.04		18.83***			
		가족가치체계	.19	.22	3.18**	.41	.17	76.14***
		가족유대감	.19	.21	3.15**			

*p<.05, **p<.01, ***p<.001

위의 <표 9>는 학교적응 하위요인 즉, 학교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에 대하여 5% 수준에서 가족건강성 하위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이다. 친구적응을 제외하면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가족건강성 하위요인 중 가족가치체계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족가치체계가 투입되었으며, 이 변인은 학교환경적응에 대하여 1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4.05, p<.001$). 교사적응의 경우를 보면, 1단계에서는 가족가치체계가 투입되었으며, 이 변인은 교사적응에 대하여 1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37.22, p<.001$). 다음 2단계에서는 가족가치체계와 가족문제해결이 투입되었으며, 두 변인은 교사적응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1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F=72.83, p<.001$).

수업적응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족가치체계가 투입되어 2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91.34, p<.001$). 친구적응에서는 학교적응에 대한 다른 하위요인들과는 달리 가족유대감이 1단계에서 투입되었다. 가족유대감은 친구적응에 대하여 1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8.47, p<.001$). 그리고 2단계에서는 가족유대감과 함께 가족가치체계가 투입되었으며, 이 두 변인은 친구적응에 대하여 15%의 설명력을 보였다($F=67.11, p<.001$).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족가치체계가 1단계에서 투입되어 1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F=140.64, p<.001$). 2단계에서는 가족가치체계와 가족유대감이 투입되어 17%의 설명력을 보였다($F=76.14, p<.001$).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학교적응 전체 변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가족건강성 하위요인 중 가족가치체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적응의 경우에는 가족가치체계보다 가족유대감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교사적응의 경우에도 다른 하위요인들과 달리 2단계에서 가족문제해결 요인이 투입되어, 적응 영역에 따라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래관계의 하위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학교적응에 대한 또래관계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인	B	β	t	R	R ²	F
1	(상수)	1.79		16.20***			
	정서적 지지	.38	.41	12.12***	.41	.17	146.95***

***p<.001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적응에 대해 5% 수준에서 또래관계의 하위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1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관계의 하위변인인 교환활동은 학교적응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의 분석은 학교적응 각 하위요인들에 대한 또래관계 하위요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본 결과이다.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학교적응 하위요인들에 대한 또래관계 하위요인들의 설명력

변인	모형	독립변인	B	β	t	R	R ²	F
학교 환경	1	(상수)	1.62		9.98***			
		정서적 지지	.40	.30	8.62***	.30	.09	74.29***
교사 적응	1	(상수)	1.69		10.93***			
		정서적 지지	.38	.30	8.64***	.30	.09	74.67***
수업 적응	1	(상수)	1.63		11.47***			
		정서적 지지	.37	.32	9.22***	.32	.10	84.94***
친구 적응	1	(상수)	1.62		14.20***			
		정서적 지지	.49	.49	15.12***	.49	.24	228.58***
	2	(상수)	1.42		11.11***			
		정서적 지지 교환활동	.39 .14	.38 .15	8.86*** 3.52***	.50	.25	122.27***
생활 적응	1	(상수)	2.42		19.10***			
		정서적 지지	.27	.27	7.46***	.27	.07	55.71***

***p<.001

위의 <표 11>은 학교적응 하위요인 즉, 학교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에 대하여 5% 수준에서 또래관계의 하위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이다. 친구적응을 제외하면 모든 하위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1단계로 종료되었다.

학교환경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지지가 1단계에서 투입되었으며, 이 변인은 학교환경적응에 대하여 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4.29, $p<.001$). 교사적응에서도 1단계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투입되었으며, 이 변인은 교사적응에 대하여 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4.67, $p<.001$).

수업적응에 대한 분석에서도 정서적 지지가 투입되었으며, 1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4.94$, $p<.001$). 친구적응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정서적 지지가 투입되었으며, 이 변인은 친구적응에 대하여 24%의 설명력을 보였으며($F=228.58$, $p<.001$), 2단계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함께 교환활동이 투입되어 25%의 설명력을 보였다($F=122.27$, $p<.001$).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1단계에서 투입되어 7%의 설명력을 보였다($F=55.71$, $p<.001$).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학교적응 전체 변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또래관계의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이 교환활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학생들의 정서적 지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4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결정성 동기의 하위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학교적응에 대한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의 종다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인	<i>B</i>	β	<i>t</i>	<i>R</i>	R^2	<i>F</i>
1	(상수)	2.38		40.02***	.44	.19	174.06***
	내재동기	.30	.44	13.19***			
2	(상수)	1.95		22.95***	.49	.24	115.52***
	내재동기	.20	.29	7.47***			
	확인통합조절	.22	.26	6.80***			
3	(상수)	2.50		21.72***	.53	.29	97.52***
	내재동기	.17	.24	6.27***			
	확인통합조절	.23	.28	7.43***			
	외적내사조절	-.20	-.22	-6.86***			

*** $p < .001$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적응에 대해 5% 수준에서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는 내재동기가 투입되어 1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확인통합조절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1단계보다 설명력이 .05만큼 증가하여 2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증가량은 유의미하였다($F=115.52$, $p < .001$). 그리고 3단계에서 외적내사조절이 추가로 투입된 결과 R^2 는 .29로 .05만큼 증가하였고 그 증가량은 유의미하였다($F=97.52$, $p < .001$). 단계 1에서의 내재동기가 학교적응에 갖는 영향력은 β 계수가 .44($p < .001$)로 나타났으며, 단계 2에서는 내재동기의 β 계수가 .29($p < .001$), 확인통합조절의 β 계수가 .26($p < .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계3에서는 내재동기의 β 계수는 .24($p < .001$), 확인통합조절의 β 계수는 .28($p < .001$), 외적내사조절의 β 계수는 -.22($p < .001$)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적응에 대해 내재동기와 확인통합조절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적내사조절의 높을 경우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분석은 학교적응 각 하위요인들에 대한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본 결과이다.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학교적응 하위요인들에 대한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들의 설명력



변인	모형	독립변인	B	β	t	R	R ²	F
학교환경	1	(상수)	2.16		24.92***			
		내재등기	.34	.35	10.18***	.35	.12	103.59***
	2	(상수)	2.75		17.84***			
		내재등기	.31	.32	9.28***	.39	.15	63.94***
		외적내사조절	-.20	-.16	-4.63***			
	3	(상수)	2.39		13.75***			
내재등기		.22	.22	5.37***	.41	.17	49.84***	
외적내사조절		-.21	-.17	-4.94***				
확인통합조절		.20	.18	4.31***				
교사적응	1	(상수)	2.18		26.48***			
		내재등기	.34	.37	10.68***	.37	.13	114.12***
	2	(상수)	1.76		14.71***			
		내재등기	.24	.26	6.33***	.40	.16	70.07***
		확인통합조절	.21	.19	4.76***			
	3	(상수)	2.29		13.89***			
내재등기		.21	.22	5.43***	.43	.18	55.08***	
확인통합조절		.23	.21	5.11***				
외적내사조절		-.19	-.16	-4.61***				
수업적응	1	(상수)	1.91		27.05***			
		내재등기	.39	.46	13.86***	.46	.21	192.04***
	2	(상수)	1.47		14.03***			
		내재등기	.27	.31	8.15***	.50	.25	123.06***
		확인통합조절	.26	.25	6.57***			
	3	(상수)	1.97		13.72***			
		내재등기	.24	.28	7.18***	.53	.28	93.21***
		확인통합조절	.27	.27	6.98***			
		외적내사조절	-.18	-.16	-5.04***			
	4	(상수)	2.19		13.42***			
		내재등기	.24	.28	7.15***	.53	.28	72.49***
		확인통합조절	.23	.23	5.61***			
외적내사조절		-.14	-.13	-3.82***				
무등기		-.08	-.10	-2.78**				
친구적응	1	(상수)	2.55		25.46***			
		확인통합조절	.25	.28	7.94***	.28	.08	62.99***
	2	(상수)	3.13		23.42***			
		확인통합조절	.24	.27	7.80***	.36	.13	53.69***
		외적내사조절	-.21	-.22	-6.40***			
	3	(상수)	3.07		22.44***			
확인통합조절		.19	.22	5.24***	.37	.13	37.65***	
외적내사조절		-.20	-.21	-5.88***				
내재등기		.07	.09	2.23*				
생활적응	1	(상수)	2.29		23.69***			
		확인통합조절	.34	.38	11.21***	.38	.15	125.62***
	2	(상수)	2.89		22.48***			
		확인통합조절	.33	.37	11.18***	.44	.20	90.33***
		외적내사조절	-.22	-.23	-6.87***			
	3	(상수)	2.80		21.37***			
		확인통합조절	.26	.29	7.43***	.46	.21	64.96***
		외적내사조절	-.20	-.21	-6.15***			
		내재등기	.10	.14	3.41***			
	4	(상수)	2.98		20.02***			
		확인통합조절	.23	.26	6.12***	.47	.21	50.68***
		외적내사조절	-.17	-.18	-4.95***			
내재등기		.10	.14	3.36***				
무등기		-.07	-.10	-2.53*				

* $p<.05$, ** $p<.01$, *** $p<.001$

위의 <표 13>은 학교적응 하위요인 즉, 학교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에 대하여 5% 수준에서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이다. 친구적응과 생활적응에서는 확인통합조절이, 그리고 나머지 학교환경, 교사적응, 수업적응에서는 내재동기가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1단계에서 내재동기가 투입되어 1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03.59$, $p<.001$). 2단계에서는 내재동기, 외적내사조절이 투입되어 15%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3.94$, $p<.001$). 그리고 3단계에서는 내재동기, 외적내사조절과 확인통합조절이 투입되어 1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9.84$, $p<.001$).

다음 교사적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에서 내재동기가 투입되어 1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4.12$, $p<.001$). 2단계에서는 내재동기, 확인통합조절이 투입되어 16%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0.07$, $p<.001$). 그리고 3단계에서는 내재동기, 확인통합조절과 외적내사조절이 투입되어 1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5.08$, $p<.001$).

수업적응에 대한 분석에서는 내재동기가 1단계에서 투입되어 2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92.04$, $p<.001$). 그리고 2단계에서는 내재동기, 확인통합조절이 투입되어 25%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3.06$, $p<.001$). 3단계에서는 내재동기, 확인통합조절과 외적내사조절이 투입되어 2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93.21$, $p<.001$). 4단계에서는 내재동기, 확인통합

조절과 외적내사조절, 무동기가 투입되어 2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2.49, p<.001$).

친구적응의 경우, 학교적응에 대한 다른 하위요인들과는 달리 확인통합조절이 1단계에서 투입되었다. 확인통합조절은 친구적응에 대하여 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2.99, p<.001$). 그리고 2단계에서는 확인통합조절과 외적내사조절이 함께 투입되었으며, 이 두 변인은 친구적응에 대하여 13%의 설명력을 보였다($F=53.69, p<.001$). 3단계에서는 확인통합조절과 외적내사조절, 그리고 내재동기가 함께 투입되었으며, 이 두 변인은 친구적응에 대하여 13%의 설명력을 보였다($F=37.65, p<.001$).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분석에서도 친구적응과 유사하게 확인통합조절이 1단계에서 투입되었다. 확인통합조절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1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25.62, p<.001$). 그리고 2단계에서는 확인통합조절과 외적내사조절이 함께 투입되었으며, 이 두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20%의 설명력을 보였다($F=90.33, p<.001$). 3단계에서는 확인통합조절과 외적내사조절, 그리고 내재동기가 함께 투입되었으며, 이 두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21%의 설명력을 보였다($F=64.96, p<.001$). 그리고 4단계에서는 확인통합조절과 외적내사조절, 내재동기 및 무동기가 함께 투입되어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21%의 설명력을 보였다($F=50.68, p<.001$).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학교적응 전체와 학교환경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에 내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반면에 친구적응과 학교생활적응에서는 확인통합조절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 자기결정성 동기의 경우에도 가족건강성과 마찬가지로 적응영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들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5.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4>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의 중다회귀분석

모형	독립변인	B	β	t	R	R ²	F
1	(상수)	1.64		15.99***			
	가족건강성	.43	.48	14.74***	.48	.23	217.37***
2	(상수)	1.06		8.18***			
	가족건강성	.35	.39	11.31***	.53	.27	139.49***
	또래관계	.23	.24	6.91***			
3	(상수)	.77		4.49***			
	가족건강성	.34	.37	10.90***			
	또래관계	.23	.24	6.97***	.53	.28	95.82***
	자기결정성 동기	.12	.08	2.53*			

*p<.05, ***p<.001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적응에 대해 5% 수준에서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를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이 투입되어 2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또래관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1단계보다 설명력이 .04만큼 증가하여 2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증가량은 유의미하였다($F=139.49$, $p<.001$). 그리고 3단계에서 자기결정성 동기가 추가로 투입된 결과 R^2 는 .28로 .01만큼 증가하였고 그 증가량은 유의미하였다($F=95.82$, $p<.001$). 단계 1에서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갖는 영향력은 β 계수가 .48($p<.001$)로 나타났으며, 단계 2에서는 가족건강성의 β 계수가 .39($p<.001$), 또래관계의 β 계수가 .24($p<.001$)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계3에서는 가족건강성의 β 계수는 .37($p<.001$), 또래관계의 β 계수는 .24($p<.001$), 자기결정성 동기의 β 계수는 .08($p<.05$)로 나타났다. 즉 학교적응에 대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나 가족 내에서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자기결정성 동기의 경우에는 가족건강성, 또래관계에 비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분석은 학교적응 각 하위요인들에 대한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의 설명력을 알아본 결과이다. 결과는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학교적응 하위요인들에 대한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의 설명력

변인	모형	독립변인	<i>B</i>	β	<i>t</i>	<i>R</i>	<i>R</i> ²	<i>F</i>
학교 환경	1	(상수)	1.63		10.50***			
		가족건강성	.40	.31	8.98***	.31	.10	80.63***
	2	(상수)	.92		4.66***			
		가족건강성	.30	.23	6.29***	.37	.13	57.06***
		또래관계	.28	.21	5.50***			
		(상수)	.54		2.03*			
	3	가족건강성	.28	.22	5.94***			
		또래관계	.28	.21	5.54***	.37	.14	39.91***
		자기결정성 동기	.17	.08	2.23*			
교사 적응	1	(상수)	1.35		9.44***			
		가족건강성	.48	.40	11.82***	.40	.16	139.65***
	2	(상수)	.94		5.08***			
		가족건강성	.42	.35	9.62***	.42	.17	76.74***
		또래관계	.16	.13	3.43**			
		(상수)	.47		1.90			
	3	가족건강성	.41	.34	9.19***			
		또래관계	.17	.13	3.48**	.43	.18	54.52***
		자기결정성 동기	.20	.10	2.92**			
수업 적응	1	(상수)	1.23		9.52***			
		가족건강성	.49	.44	13.30***	.44	.19	176.77***
	2	(상수)	.80		4.75***			
		가족건강성	.43	.38	10.79***	.46	.21	98.51***
		또래관계	.18	.15	4.07***			
		(상수)	.31		1.39			
	3	가족건강성	.41	.37	10.31***			
		또래관계	.18	.15	4.13***	.47	.22	70.25***
		자기결정성 동기	.21	.11	3.32**			
친구 적응	1	(상수)	1.40		10.90***			
		또래관계	.51	.49	15.20***	.49	.24	231.13***
	2	(상수)	.96		6.97***			
		가족건강성	.23	.24	7.09***	.54	.29	148.42***
생활 적응	1	(상수)	1.97		17.15***			
		가족건강성	.40	.41	12.21***	.41	.17	149.16***
	2	(상수)	1.68		11.25***			
		가족건강성	.36	.37	10.13***	.42	.18	80.02***
		또래관계	.12	.11	3.03**			

*p<.05, **p<.01, ***p<.001

위의 <표 15>는 학교적응 하위요인 즉, 학교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에 대하여 5% 수준에서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를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이다. 친구적응을 제외하면, 1단계에 투입된 변인은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적응의 경우에는 또래관계가 1단계에 투입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환경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1단계에서 가족건강성이 투입되어 10%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0.63, p<.001$). 2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 또래관계가 투입되어 13%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7.06, p<.001$). 그리고 3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가 14%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9.91, p<.001$).

다음 교사적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에서 가족건강성이 투입되어 1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39.65, p<.001$). 2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 또래관계가 투입되어 17%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6.74, p<.001$). 그리고 3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가 1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4.52, p<.001$).

수업적응에 대한 분석에서는 1단계에서 가족건강성이 투입되어 1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76.77, p<.001$). 2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 또래관계가 투입되어 21%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8.51, p<.001$). 그리고 3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가 2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0.25, p<.001$).

친구적응의 경우, 학교적응에 대한 다른 하위요인들과는 달리 또래관계가 1단계에서 투입되어 2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F=231.13$, $p<.001$). 그리고 2단계에서는 또래관계와 함께 가족건강성이 투입되었으며, 이 두 변인은 친구적응에 대하여 29%의 설명력을 보였다($F=148.42$, $p<.001$).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에서 가족건강성이 투입되어 1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49.16$, $p<.001$). 2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 또래관계가 투입되어 18%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0.02$, $p<.001$).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학교적응 전체와 학교환경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 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성 동기는 친구적응과 생활적응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각 요인들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교적응의 하위변인 간 대부분 변인들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및 하위요인 전체 간 정적상관을 이루며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을수록,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가족의 문제해결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선행연구(남영자, 2008; 박민주, 2006; 손민경, 2005; 임정아, 2005; 장성화, 2010)와 일치하였다.

또래관계의 하위요인들과 학교적응간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또래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권용수, 2005; 정정화, 2008)와 일치하였다.

자기결정성 동기의 경우 무동기와 외적내사조절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내재동기와 확인통합조절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른 다섯 가지 동기유형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에서 자기결정성이 낮은 무동기나 외적동기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자기결정성이 높은 부과된, 확인된, 내재적 동기에 속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임지현, 2007)와 확인된 동기를 가진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재미와 관심이 높았으며 외적으로 동기화된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에 관한 관심이 낮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Ryan & Connell, 1989)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 등의 차원에서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가족이 건강해야 하며 지지해 주는 건전한 친구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겠다.

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하위변인이 학교적응과 학교적응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가족건강성 하위요인 중 가족가치체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남영자, 2008)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 중

가족원간의 유대로 나타난 박민주(2006)의 연구,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난 손민경(2005)의 연구, 가족원간의 문제해결능력으로 나타난 임정아(2005)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의 영향력은 다소 달랐지만 학교적응은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변인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져 학교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다.(남영자·박태영, 2009; 임정아·이인수, 2006)

학교적응 하위요인 즉, 환경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에 대해서는 친구적응을 제외하면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가족가치체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적응의 경우에는 가족가치체계보다 가족유대감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교사적응의 경우에도 다른 하위요인들과 달리 2단계에서 가족문제해결 요인이 투입되어, 적응 영역에 따라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중학생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간의 같은 목표, 생각을 공유하는 건전한 가치체계의 공유로 가족내에서 안정과 휴식을 찾아 자신의 정체감을 발달시키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중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왕따, 고립감은 가족원들의 강한 유대감과 가족간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활동 등으로 극복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정서적·관계적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 또래관계와 학교적응

중학생의 또래관계의 하위변인이 학교적응과 학교적응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학교적응 전체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또래관계의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이 교환활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들에게서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보고(구자은, 2000; 임유진, 2001)와 또래간의 인정과 원조가 아동의 학교에서의 정서적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힌 연구(이호선, 2000), 그리고 친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인 만족감과 애정이 높을수록, 친구로부터 긍정적 지원 기능 즉 동료관계, 도움, 친밀, 신뢰, 인정, 정서적 안정을 많이 얻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윤상은, 2008)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중학생들의 정서적 지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또래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래 교사제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면,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만족도도 증가시켜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로 인식하여 학교적응도도 높아질 것이다.

라.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교적응

중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의 하위변인이 학교적응과 학교적응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학교환경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과 내재동기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 확인통합조절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전체와 학교환경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에 내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반면에 친구적응과 학교생활적응에서는 확인 통합조절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 자기결정성 동기의 경우에도 가족건강성과 마찬가지로 적응영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들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적응에 대해 내재동기와 확인통합조절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적내사조절의 높을 경우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자율적인 공부보다는 통제적이며 억압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비자율적인 동기가 형성되고 공부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잃고, 공부를 하는 것의 개인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줄어들면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처벌과 비난을 피하고 외적 보상을 위해 하는 수 없이 공부하는 현재 교육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청소년의 내재동기를 향상시키고 학습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며,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지도에 있어 실천해야 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마.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학교적응에 대해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의 순으로 영향

력을 나타내었다. 학교적응에 대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 건강성으로 나타나 가족 내에서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족이 건강할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높다는 선행연구(박민주, 2006; 임정아, 2005)와 일치하였다.

또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의 하위변인이 학교적응과 학교적응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력도 역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학교적응 전체와 학교환경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 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역시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성 동기는 친구적응과 생활적응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적응의 경우, 학교적응에 대한 다른 하위요인들과는 달리 또래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교사관계로 나타난 연구결과(노진하, 2007)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시키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이며, 가족원끼리 건전한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가족원과의 유대를 견고히 하며 민주적인 의사소통으로 위기나 문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높이도록 가족건강성과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를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는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자기결정성 동기의 경우 무동기와 외적내사조절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내재동기와 확인통합조절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적응 전체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가족건강성 하위요인 중 가족가치체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적응의 경우에는 가족가치체계보다 가족유대감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교사적응의 경우에도 다른 하위요인들과 달리 2단계에서 가족문제해결 요인이 투입되어, 적응 영역에 따라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중학생의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적응 전체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또래관계의 하위 요인 중 정서적 지지의 영향력이 교환활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학생들의 정서적 지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학교적응 전체와 학교환경적응, 교사적응, 수업적응에 내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반면에 친구적응과 학교생활적응에서는 확인통합조절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 자기결정성 동기의 경우에도 가족건강

성과 마찬가지로 적응영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들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자기결정성 동기중에서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건강성이며 가족건강성 하위요인중 가족가치체계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그러나 친구적응의 경우에는 가족가치체계보다 가족유대감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교사적응의 경우에도 다른 하위요인들과 달리 2단계에서 가족문제해결 요인이 투입되어, 적응 영역에 따라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기결정성 동기는 친구적응과 생활적응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가족간의 건강한 가치체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공유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공유하여, 전통과 가족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가족 전통을 아는 가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훈련프로그램, 가족 알아가기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에서 이루어져야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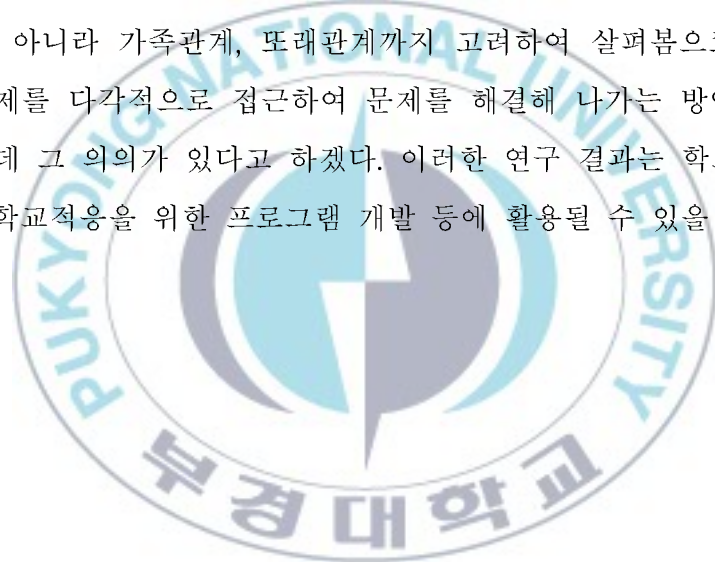
첫째,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가족건강성, 또래관계 및 자기결정성 동기 외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변인들을 좀 더 탐색하여 중학생이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더 잘 적응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지역을 부산시내로 제한하여 임의로 표집하였기 때

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타당한 연구를 위해 전국학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집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초등학생, 고등학생 전체에 대한 연구와 부산시내 교육청간 비교 연구 및 남녀 차이도 연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 또래관계까지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학교부적응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용수(2005). 중학생의 교우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경희(2003).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업적 자기조절 동기유형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정희(2000).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과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명희, 하정희, 차경희(2006). 중학생들의 자기결정성 동기, 다중지능, 학습양식과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4(3) 57-79**
- 김아영(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6(4), 169-187.**
- 김아영 · 오순애(2001).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 유형의 분류. **교육심리연구, 15(4), 97-119**
- 김영란(2006).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인천 · 경기지역 중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구(1999). 자아개념 · 자기결정성 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경(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일태, 허남진(2004). 비학업자아개념과 자기결정성 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분석. **열린교육연구 12(1) 75-96.**

- 김주환 · 김은주 ·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김천기(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또래관계 질과
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표선(2004). 아동의 또래 지위와 우정의 질 및 친구 간 갈등 해결 전략과
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영자(2008).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영자 · 박태영(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4), 47-71
- 노진하(200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친구지지 및 교사관계
와 학교적응간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경희(2003).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 **대한가정
학회지**, 41(12), 147-168
- 박민주(2006).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민주 · 황기아(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10(2), 43-51
- 박병기 · 이종욱 · 홍승표 (2005). 자기결정성 이론이 제안한 자기결정성 학
습동기 분류형태의 재구성. **교육심리연구**, 19(3), 699-717
- 박연수(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일희(1998). 초등학교 아동의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현(2003).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및 사

- 회적 지지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선영(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찬란(2005). 가족환경요인 및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민경(2005).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행동문제가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소정(2008). 자기결정성 동기와 자아존중감, 대처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미리(2008). 영재, 잠재적 영재 그리고 일반아의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학교적응간의 관계.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교문사.
- 유영주 · 서동인 · 홍숙자 · 전영자 · 이정연 · 오윤자 · 이인수(2008). **현대 결혼과 가족**. 서울:신광출판사
- 유영주 · 어은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윤상은(2008).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또래관계에 대한 갈등해결 전략과 매개 효과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향순(2009). 청소년의 또래관계 문제행동과 관련된 가정환경 변인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나영(2008).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와 자아탄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남희(2005). 또래상담자 활동이 교우관계 및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효과.

-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2007).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현(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석영(2009).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주(2002).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리(1994). 아동 및 유아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영숙(2001). 자기결정성 동기와 비학업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정아(2005).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정아 · 이인수(2006).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아동교육, 15(2), 37-62**
- 임지현(2007).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른 동기유형과 학업성취, 학업유능감, 자기조절학습 능력과의 관련성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성화(2010). 대안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의 인과적 구조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연집(1997). 아동 문제 및 행동수정. 서울:양서원
- 정애숙(2005).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태도가 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

-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유진(2000). 청소년 학교적응에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유진(2005). 또래관계와 어머니 및 형제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정화(200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또래관계의 질 및 학교적응도와 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학래(2006). 고등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4, 51-75
- 최병연(2002).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의 교육적 적용. **교육문제연구**, 3, 165-184
- 추미애(2005).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봉열(1996). 건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 제3회 가정의 날 기념 행사.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Connell, R. W. (1989). Coll Guys, Swots and Wimps: the interplay of masculinity and education. *Oxford Review of Education*, 15(3), 291-303.
- Deci, E. L. & Ryan, R. M. (1986).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319-338

Deci, E. L. & Vansteenkiste, M. (2004).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basic need satisfaction;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in positive psychology. *Ricerche di Psicologia*, 27(1), 23-40.

Kim, A. (2002). *Taxonomy of Student Motiv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April.

Ryan, R. M. (1995). Psychological needs and facilitation of integrative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3, 397-427.

Ryan, R. M. & Connell, J. P & Deci, E. L.(1985). A Motivational analysis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regulation. In C. Ames & R. E. Ames(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the classroom milieu*. New York: Academic Press. 13-51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Ryan, R. M. & Deci, E. L. (2000a).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Ryan, R. M. & Deci, E.L. (2000b).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Vallerand, R. J. & Bissonnette, R(1992). Intrinsic, extrinsic, and 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s: A prot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60, 599-620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모든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답변 하나 하나는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김성애 드림

학교	()중학교		
학년	()학년	성별	남() 여()

또래 관계 척도

다음은 여러분과 친구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나의 경우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O를 해 주십시오..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아플 때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병문안 와준다.	1	2	3	4	5
2. 내가 슬플 때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	1	2	3	4	5
3. 내 친구들은 내 생일을 기억해 준다.	1	2	3	4	5
4. 내가 잘못할 때는 친구가 충고해 주곤 한다.	1	2	3	4	5
5.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같이 찾아 준다.	1	2	3	4	5
6. 내 친구들은 먹을 것을 내게 나눠준다.	1	2	3	4	5
7. 내 친구들은 학용품을 내게 빌려준다.	1	2	3	4	5
8. 내 친구들은 내가 멋지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내가 잘 했을 때는 친구들이 칭찬한다.	1	2	3	4	5
10. 내가 반장이나 학급 임원으로 나가면 찍어 줄 친구들이 많다.	1	2	3	4	5
11. 내가 말하면 친구들은 잘 따라온다.	1	2	3	4	5
12. 내 친구들은 나의 좋은 점을 알아준다.	1	2	3	4	5
13. 나는 친구 집에 놀러간다.	1	2	3	4	5

자기결정성 동기 척도

다음은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그 내용이 나 자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O를 해 주십시오.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숙제를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2. 숙제를 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1	2	3	4	5
3. 공부는 나에게 관심거리가 아니다.	1	2	3	4	5
4. 나는 공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5. 수업 중에 하는 토론이나 발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1	2	3	4	5
6. 수업 중에 하는 토론이나 발표는 시간낭비이다.	1	2	3	4	5
7. 성적에 대해서 나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1	2	3	4	5
8. 나는 성적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9. 숙제를 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숙제한다.	1	2	3	4	5
10. 숙제를 안 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숙제한다.	1	2	3	4	5
11. 공부를 해야 부모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니까 하는 수 없이 공부한다.	1	2	3	4	5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공부한다.	1	2	3	4	5
13. 토론/발표의 순서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참여한다.	1	2	3	4	5
14. 토론/발표에 참여하는 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참여한다.	1	2	3	4	5
15. 성적을 잘 받아야 부모님께 야단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잘 받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16. 성적을 잘 받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잘 받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17. 숙제를 잘 해야 선생님께서 나를 좋은 학생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숙제한다.	1	2	3	4	5
18.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숙제한다	1	2	3	4	5
19. 공부를 잘 해야 부모님께서 나를 좋은 자식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공부한다.	1	2	3	4	5
20.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할 것 같아서 공부한다.	1	2	3	4	5
21. 토론/발표에 참여해야 선생님께서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참여한다.	1	2	3	4	5
22. 토론/발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뒤처진 것 같아서 참여한다.	1	2	3	4	5
23. 성적을 잘 받아야 선생님께서 나를 우수하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잘 받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24. 성적을 잘 받지 않으면 나 자신이 창피하므로 잘 받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25. 숙제를 잘 해야 학습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스스로 숙제한다.	1	2	3	4	5
26. 숙제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숙제한다.	1	2	3	4	5
27. 공부를 해야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 공부한다.	1	2	3	4	5
28.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한다.	1	2	3	4	5
29. 토론/발표에 참여해야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서 스스로 공부한다.	1	2	3	4	5
30. 토론/발표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한다.	1	2	3	4	5
31. 성적은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므로 잘 받고자 스스로 노력한다.	1	2	3	4	5
32. 성적을 잘 받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잘 받고자 스스로 노력한다.	1	2	3	4	5
33. 숙제를 잘 하는 것이 인간적 성장에 도움 될 것 같아 스스로 숙제한다.	1	2	3	4	5
34. 숙제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에 비추어 당연하므로 스스로 숙제한다.	1	2	3	4	5
35.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인간적 성장에 도움 될 것 같아 스스로 공부한다.	1	2	3	4	5
36. 공부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에 비추어 당연하므로 스스로 공부한다.	1	2	3	4	5
37. 토론/발표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적 성장에 도움 될 것 같아 스스로 참여한다.	1	2	3	4	5
38. 토론/발표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에 비추어 당연하므로 스스로 참여한다.	1	2	3	4	5
39.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인간적 성장에 도움 될 것 같아 잘 받고자 스스로 노력한다.	1	2	3	4	5
40. 성적을 잘 받는 것은 나의 가치관에 비추어 당연하므로 잘 받고자 스스로 노력한다.	1	2	3	4	5

한다.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숙제 자체가 재미있어서 스스로 숙제한다.	1	2	3	4	5
42. 숙제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스스로 숙제한다.	1	2	3	4	5
43. 공부 자체가 재미있어서 스스로 공부한다.	1	2	3	4	5
44.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한다.	1	2	3	4	5
45. 토론/발표가 재미있어서 스스로 참여한다.	1	2	3	4	5
46. 토론/발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한다.	1	2	3	4	5
47.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흥미있어서 잘 받고자 스스로 노력한다.	1	2	3	4	5
48. 성적을 잘 받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잘 받고자 스스로 노력한다.	1	2	3	4	5

가족건강성 척도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각이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O를 해 주십시오.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3. 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되도록 노력한다.	1	2	3	4	5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1	2	3	4	5
5.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1	2	3	4	5
6.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1	2	3	4	5
7. 온 가족이 함께 한 일을 결정하기는 매우 쉽다.	1	2	3	4	5
8. 우리 가족은 서로 믿으며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 놓고 산다.	1	2	3	4	5
9.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1	2	3	4	5
10.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	2	3	4	5
11. 우리 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	1	2	3	4	5
12.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규칙은 명확하다.	1	2	3	4	5
13. 자기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가족에게 말 할 수 있다.	1	2	3	4	5
14. 우리 가족은 서로의 사생활을 인정한다.	1	2	3	4	5
15.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 모두가 책임을 동등하게 진다.	1	2	3	4	5
16. 우리 가족은 연장자에 대해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다.	1	2	3	4	5
17.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	1	2	3	4	5
18. 우리 가족은 가정에 충실하다.	1	2	3	4	5
19. 우리는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는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한다.	1	2	3	4	5
21.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1	2	3	4	5
22. 우리 가족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일치한다.	1	2	3	4	5
23. 우리 가족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직접 말한다.	1	2	3	4	5
24.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인다.	1	2	3	4	5
25. 우리 가족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일치한다.	1	2	3	4	5
26. 우리는 서로의 일을 주의 깊게 듣는다.	1	2	3	4	5
27.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는 다른 가족원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	1	2	3	4	5
28. 우리 가족 간의 의견 차이는 극복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29. 우리 가족만의 전통이 있다.	1	2	3	4	5
30. 우리 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1	2	3	4	5
3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진실하다.	1	2	3	4	5
32. 우리 가족은 관심사와 취미가 같다.	1	2	3	4	5
33.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애정을 표현한다.	1	2	3	4	5
34. 우리는 가족의 규칙이나 가치관을 함께 만든다.	1	2	3	4	5

학교적응 척도

다음은 학교적응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감정 또는 기분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O를 해 주십시오.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학교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학교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을 내 것처럼 아껴 쓴다.	1	2	3	4	5
4. 나는 학교에서 맡기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1	2	3	4	5
5. 나는 학교에서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다.	1	2	3	4	5
6. 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을 반드시 준비해 간다.	1	2	3	4	5
7. 나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학교 내의 각종 게시물이나 안내방송에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9. 나는 우리 학교 교내 환경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10. 나는 우리 학교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11. 나는 우리 학교 내의 구석구석이 잘 정돈되어 있어 안정감을 느낀다.	1	2	3	4	5
12. 나는 우리 학교 환경을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1	2	3	4	5
13. 쾌적한 우리 학교 내의 모든 공간은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1	2	3	4	5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우리 학교 내의 모든 공간은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1	2	3	4	5
15. 나는 학교에 오면 공부하는 환경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 진다.	1	2	3	4	5
16. 나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자부한다.	1	2	3	4	5
17. 나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든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한다.	1	2	3	4	5
18. 학교에서 나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다.	1	2	3	4	5
19. 우리 학교는 모범적인 친구들이 많아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1	2	3	4	5
20. 나는 우리 반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하고 도와준다.	1	2	3	4	5
21. 나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는 경우에 내가 먼저 사과 한다.	1	2	3	4	5
22.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을 믿고 의지한다.	1	2	3	4	5
23. 나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학교 친구와 먼저 의논한다.	1	2	3	4	5
24.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 한다.	1	2	3	4	5
25. 나는 학교선생님들을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1	2	3	4	5
26. 나는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친절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1	2	3	4	5
27. 나는 다양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친구처럼 느낄 때가 많다.	1	2	3	4	5
28.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	1	2	3	4	5
29.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1	2	3	4	5
30. 나는 열심히 지도해 주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1	2	3	4	5
31.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자상하고 원만하며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1	2	3	4	5
32.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내게는 마치 부모님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33. 나는 학교 수업시간 중에는 한눈을 팔지 않는다.	1	2	3	4	5
34. 나는 학교 수업시간 중 선생님의 질문에 편안하게 대답한다.	1	2	3	4	5
35.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지나간다.	1	2	3	4	5
36.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반드시 준비한다.	1	2	3	4	5
37. 나는 어느 교과목의 시간에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38. 나는 학교 수업내용을 매일 연습과 복습을 한다.	1	2	3	4	5
3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1	2	3	4	5
40. 나는 이번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2	3	4	5
41. 나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활동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설문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